

석유는 땅에 파이프를 박아 놓으면 저절로 나온다. 석유는 지구가 수억
년 동안 땅 속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다. 그런데 워낙 생산비가 적게 들기
때문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 왔다. 불과 150년 쯤인데 벌써 고갈된다는
말이 나온다. 어차피 석유는 인류 역사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
에너지원이다.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중간의 청동기시대에 비유한
사람도 있다.